

# 이재명 내일 검찰 출석...이화영 “檢 압박에 허위 진술”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참석, 인제군 의원의 격려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민주 “정기국회 기간 강압 소환” 비판 이 전 부지사 “양심 어긋난 행위 후회한다” 자필 편지...영장 청구 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오는 9일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하기로 했다.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해 검찰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 이번 사건에 변수가 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다음 주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재명 당 대표는 오는 9일 토요일 수원지검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번번이 국회를 무시하더니 급기야 이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 소환을 요구했다”며 “더구나 검찰이 요구한 출석 일자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 질문 기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 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저들이 저열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正大하게 나아가겠다.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토요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9일 검찰 출석 결정의 배경에는 검찰의 영장 청구 가능성을 차단하고 ‘방탄

단식’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한 전략이 담겼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의 소환에 3회 이상 불출석 할 경우, 소환조사가 없이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검찰의 소환 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방탄 단식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 대변인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 점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일방적인 정치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당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의 분열을 목적으로 한 검찰의 정치행위다. 그동안 검찰 조사를 충분히 해왔다고 했는데 그게 8월말이든 9월말이든 무슨 상관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와 검찰 측은 그동안 출석 일정과 방식 등에서 이견을 빚으며 소환 조사가 두 차례 불발됐고, 결국 이 대표가 7-9일 사이에 출석하라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런 가운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언론에 공개한 자필진술서를 통해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대북송금에)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는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달 21일에도 자신의 검찰 진술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자필 편지로 “저 이

화영은 쌍방울(김성태)에 스마트폰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첫 자필 편지에선 언론 보도 내용을 반박한 것인데, 이번엔 검찰 진술 내용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지사의 중요 진술이 뒤집히면서 검찰의 이 대표 수사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따라 검찰이 과연 다음 주 중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다음 주 초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이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검찰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식으로 건강이 크게 악화된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할 경우, 민심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 측에서 이 대표의 단식 등을 고려해, 추석 연휴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느냐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폰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 복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이 대표가 이번엔 출석하면 5번째 검찰 소환조사가 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채상병 수사 외압’ 특검·장관 탄핵 추진

민주, 국방부 수사 방해 비난...통일장관 해임 건의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방부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해병대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진성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장관이 수사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며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대통령인 장관이든 또는 검사든 판사든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일각에선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례에서 보듯 해임 건의는 실질적 효력이 없는 만큼 곧장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차츰 힘을 받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해병대원 사망사고 TF’ 주도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 발안

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국민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발언도 거듭 문제 삼았다. 지도부 인사는 “사태를 지켜본 뒤 필요하면 통일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등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 전 구청장을 다시 공천할 것이라는 관측을 두고도 공세를 가했다.

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김태우 전 수사관은 과거 대검 검찰을 통해 건설업자와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인사 청탁을 하고, 수사에 부당 개입하고 항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징계만 받았다”며 “검찰이 그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제 식구 감싸기’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여의도 브리핑

### 김희재 “일반용 8월 전기요금 5월의 2.2배”

올 여름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5월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다는 46% 증가한 수치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시) 국회의원이 7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일반용(갑) 평균 요금은 70만179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5월(31만 8075원) 대비 2.2배 수준으로 오른 수치이다. 전월(53만 816원)과 비교해도 한 달 새 32.2%(17만 974원)가 올랐다.

통상 상업용 건물 내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일반용(갑) 요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요금제로 분류된다.



일반용(갑)의 8월 기준 3년간 요금을 보면 2021년 41만47원에서 2022년 48만1660원(이하 전년 동월 대비 17.5%), 2023년 70만 1790원(45.7%)으로 증가했다.

김희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는 감세하고, 소상공인은 전기세 폭탄 고통에 내몰고 있다”며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해 국민들을 신속 지원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김원이 “초중고생 최근 5년 822명 극단 선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초·중·고교생의 극단적 선택이 크게 증가하고, 우울증치료를 받은 아동·청소년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이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초·중·고교생은 총 822명으로, 연평균 164명에 이른다. 이중 고등학교생이 505명(61.4%)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이 280명(34.1%), 초등학생도 37명(4.5%)이나 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미성년자는 증가 추세다. 지난 2018년과 2022년을 비교해보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고등학생은 32.6%



(89→118명) 늘었다. 중학생은 23.1%(52→64명) 증가했고, 초등학생은 무려 266.7%(3명→11명)나 급증했다.

극단적 선택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족갈등, 부모로부터의 학대 등 가정 문제가 2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원인 미상 246건, 학업 진로문제 167건, 정신과적 문제 161건, 학교 폭력을 포함한 대인관계 문제 134건, 자인 사망, 성폭력 피해, 중독 문제 등 기타 원인 132건 순으로 이어졌다. /오광록 기자 kroh@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